

축제로 배가되는 ‘연(蓮)’의 식품 가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축제가 지역 홍보의 중심적 소재가 되거나 지역 활성화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축제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음식 관련 축제의 수는 전체 1,200여 개 축제 중 200개가 훨씬 넘는다. 음식이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축제 소재의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먹을거리를 주요 소재로 하는 축제는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고, 축제를 통해서 얻는 실질적인 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과 관련된 지역 축제들을 예로 들어보자. 강릉 오징어축제, 송지호 재첩잡이체험축제, 고성 명태축제, 양구 곰취축제, 양양 송이축제, 인제 황태축제, 홍천 찰옥수수축제, 횡성 한우축제, 광주 퇴촌토마토축제, 이천 쌀문화축제, 파주 장단콩축제, 진영 단감제, 밀양 얼음골사과축제, 창원 수박축제, 함양 산삼축제, 고령 딸기축제, 문경 오미자축제, 성주 참외축제, 영양 고추문화축제, 청송 사과축제, 보성 전어축제, 완주 비봉수박축제, 보목 자리돔큰잔치, 제주 도새기축제, 서산 육쪽마늘축제, 괴산 청결고추축제, 충주 밤축제... 식물성과 동물성을 불문하고 다양한 음식 소재 축제가 전국에 걸쳐서 상당히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본 글에서는 ‘연(蓮)’을 소재로 한 축제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연은 단순한 먹을거리로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연의 문화적 가치가 축제 속에서 표현될 때 연의 식품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취지다.

연을 소재로 한 축제로는 현재 ‘대한민국연산업박람회’로 이름이 바뀐 전남 무안군 무안백련대축제, 인천시 강화군 선원사 연꽃축제, 전북 김제시 청운사 연꽃축제, 충남 부여군 부여서동 연꽃축제 등이 있다.

연의 종류는 1,500여 종에 이르며, 수련과로 홍련과 백련으로 나뉜다. 여러해살이풀로서 연못과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인 연은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호주, 서쪽으로는 카스피 해까지 널리 자생하며, 동쪽으로는 한국, 일본 등에 분포하고 있다.

연의 생태적 특성 및 효능은 각각의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연의 뿌리는 각혈 또는 코피가 날 때 지혈제로 쓰이며, 연잎은 설사와 두통 등에 유용하다. 연은 예로부터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에 그 효능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의학적 효과가 뛰어난 약재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불로식(不老食)으로 취급할 뿐 아니라 연의 모든 부분을 약으로 사용해 왔으며, 특히 불면증·설사·빈혈·자궁근종·조루·숙취 등에 효과가 있다. 또 스트레스와 다이어트, 피부 미용 등 그 용도가 다양하여 차, 음식, 화장품 등의 재료로 쓰인다. 게다가 최근 웰빙 열풍과 더불어 대표적인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어서 연잎차·연잎·연냉면·연화주 등의 상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연을 소재로 한 음식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연 요리 전문점이 생겨나기도 했다. 연잎에 갖은 고명을 넣은 밥을 올리고 잘 감싼 뒤 살짝 찌서 먹는 연쌈밥을 누구나 한 번쯤은 맛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과 관련된 것 중에는 희귀한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1951년 일본의 신석기시대 카누 속에서 찾은 연꽃은 무려 2만 년을 산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씨를 심었더니 14개월 후 오늘날과 다름없는 꽃을 피워내기도 했다고 한다. 연은 또한 내재된 예술적 가치가 커서 불상, 사찰 지붕 기와 등 곳곳에서 연화 무늬가 자주 발견될 뿐 아니라 현대의 도자기나 다양한 상품에도 연 문양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석가가 연꽃에서 태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연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상징이고 시인이나 문인들에게는 고고한 선비, 청렴한 군자 혹은 절세미인을 상징한다. 연은 고대 소설이나 문필가 등의 작품들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되었다. 특히 춘정을 돋우거나 장수, 건강,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전남 무안군은 동양 최대 규모의 백련(白蓮) 군락지가 있어 연 중에서도 백련이라는 보다 차별화된 소재를 축제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무안에는 백련과 관련된 '정 노인과 백련' 이야기가 전해져서 사람들이 무안의 '백련지'와 '백련'을 좀 더 특별하게 오래 기억하도록 만든다.

“60~70여 년 전, 백련지 근처에 살던 정수동이라는 노인이 백련 열두 포기를 구해 저수지 가장자리에 심었다. 그날 밤 정 노인은 열두 마리의 학이 내려와 연잎에 앉는 꿈을 꾸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백련이 피어 있는 모습과 같았다. 그날 이후 정 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열과 성을 다해 백련을 가꾸었고, 백련지는 연꽃으로 가득하게 됐다.”

이 이야기는 최근 축제 기획 방식에서 가장 자주 강조되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축제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그런데 2007년까지 ‘무안백련축제’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던 연꽃 축제가 2008년에는 ‘대한민국연산업박람회’로 이름이 바뀌어 개최되었다. ‘무안백련축제’라는 고유의 이름에서 복합적으로 연상되는 연과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와 상상력이 ‘연산업박람회’라는 보통명사화 된 이름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점이 안타깝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은 식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예술적·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들이 축제 속에서 다양하게 발현되지 않을 경우 연의 식품적 또는 생물학적 가치조차 매몰될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무안군은 연이 가지는 다양한 상품적 가치와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컸거나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이 든다. ‘무안백련축제’라는 예쁘고 정겨운 축제 이름을 버리고 산업박람회라는 이름 아래 좀 더 큰 규모의 연 상품 전시판매장을 만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체험’, ‘백련천연염색’, ‘연부채 만들기’, ‘연문양한지공예’, ‘연문양탁본체험’, ‘단청체험’, ‘연쌈밥 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먹을거리를 축제의 주요 소재로 활용할 경우, 농어촌의 1차 생산자 및 경작자 그리고 2차 가공자 및 상품 생산자의 산물과 상품 판매 축진은 물론이고, 생산자의 생산 의욕 증진과 농어촌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지역의 토착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축제의 경제 효과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단기적인 효과에 집착하여 오히려 축제의 고유한 본질을 훼손하고, 결국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장기적으로 특산물의 부가가치 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연다고 하더라도 축제의 향후 발전 방향을 어디에 두는지, 또는 축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축제의 내용과 진행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무안백련축제의 경우 이 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백련의 문화적·예술적 속성과 지역주민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경우이다. 이때는 축제를 통해 무안군의 고유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면서 무안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결국 무안군민의 삶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주민 대상 재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연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연꽃에 관련된 전설이나 이야기, 신화, 종교적 특성, 연 관련 예술 작품, 문화재 등을 활용한 콘텐츠), 문화 상품 및 캐릭터 상품 개발(연 관련 식품, 기념품, 문화 상품 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 축제를 개최한다면 무안군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축제 소재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인지시키고 연꽃 축제를 무안군의 문화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조금하게 구체적인 실적을 요구할 경우 축제의 기획 방향을 결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 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연 축제를 통해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연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할 것이다. 백련주, 백련차, 백련잎쿠키, 백련진간장, 백련쌀약과, 백련라면, 연떡볶이, 연냉면, 연음료수, 백련비누 같은 것들이 이러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축제는 상품 판매의 장이 되고, 이것이 성공할 경우 무안군의 소득 창출은 물론 무안군 특산품의 브랜드 가치 또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창출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불만과 무관심이 자칫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축제를 열지 않은 것보다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 외부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축제가 지나친 상품 판촉 행사로 보일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축제를 개최할지는 전적으로 지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연이 가진 고유한 생물학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성급한 욕심으로 사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